

2017년 8월 1일자로 보도부탁 드립니다.

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

관련 문의: 02-2123-669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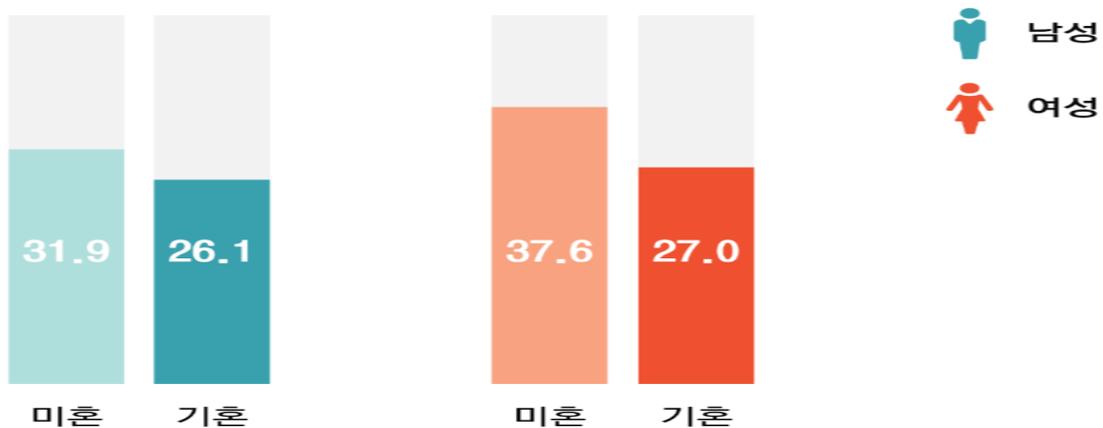
barunict@barunict.kr

## 스마트 폰 사용패턴으로 알아보는 부부탐구생활!

- 기혼자 스마트 폰 사용시간 미혼자 대비 76%수준
- 기혼 남성과 여성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은 별다른 차이 없어
- 결혼 후, 여성은 여가관련 앱 사용비중 ↓, 남성은 커뮤니케이션 앱 사용비중 ↓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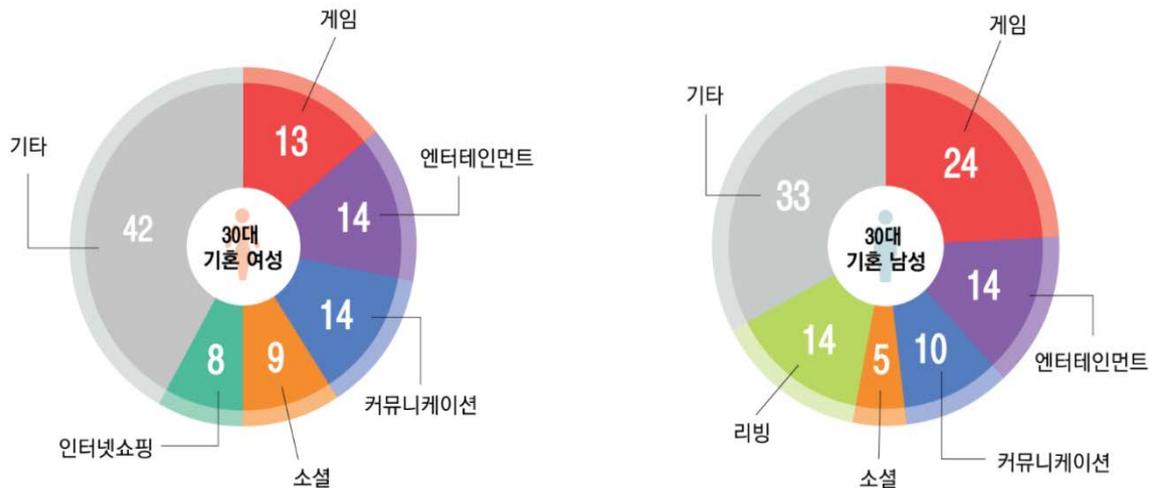
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에서 2016.06.27 ~ 2016.10.02 14주간 전국의 만 7세이상 6,09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폰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기혼자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은 주당 평균 26.6시간으로 미혼자의 사용시간(34.7시간) 대비 76.6%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, 기혼여성의 경우 미혼여성 대비 10.5시간(미혼자: 37.6시간 vs. 기혼자: 27시간) 사용이 적는데 반해 남성의 경우 5.8시간(31.9시간→26.1시간) 사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 남성보다는 여성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. 하지만, 절대사용시간 기준으로 기혼여성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(주당 평균 27시간)은 기혼남성의 사용시간(26.1시간)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.

[그림1] 결혼여부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 격차 (주당, 평균사용시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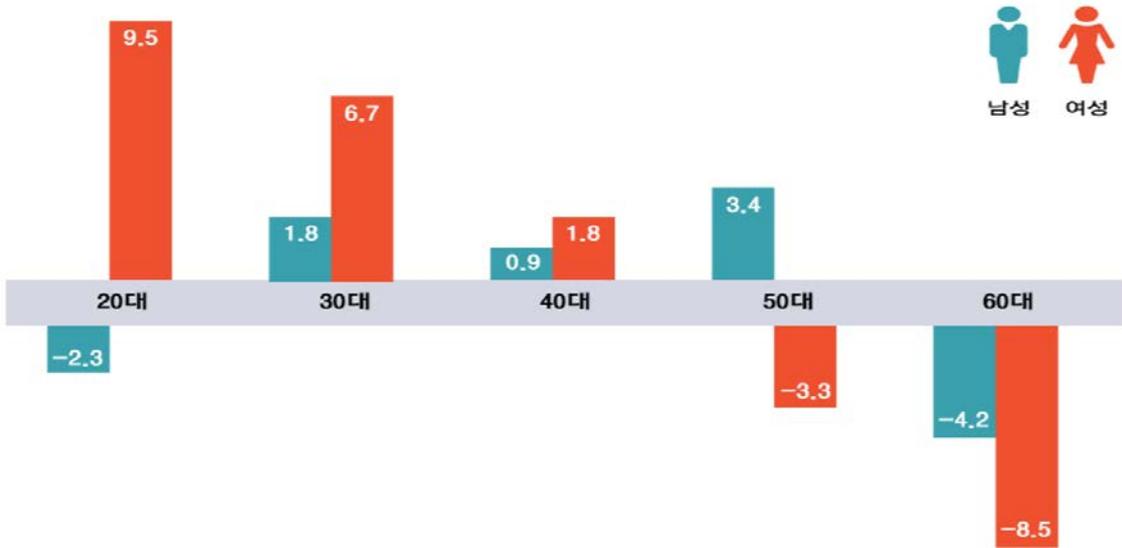
결혼 적령기인 30대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여부에 따른 스마트 폰 사용패턴 변화를 살펴본 결과, 성별에 따른 스마트 폰 사용패턴상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. 여성의 경우 기혼자의 여가관련 앱 사용시간 감소(엔터테인먼트: 7.1시간→4.4시간, 게임: 6.1시간→4.1시간)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운데 인터넷 쇼핑 및 소셜 네트워크 사용시간이 소폭 상승 (인터넷 쇼핑: 2.1시간→2.5시간, 소셜 네트워크: 2.6시간→2.8시간)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반면, 남성의 경우 여성과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 앱 사용시간의 감소 (엔터테인먼트: 5시간→4.2시간)와 함께 카톡, SNS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관련 앱 사용 감소가(커뮤니케이션: 4.1시간→3시간, 소셜 네트워크: 1.8시간→1.4시간) 두드러지게 나타났다. 하지만, 오히려 게임과 생활, 인터넷 앱 사용시간은 상당부분 증가(게임: 6.8시간→8.2시간, 생활: 3.8시간→4.1시간, 인터넷: 2.1시간→2.4시간)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과는 다른 사용패턴을 보여주었다. 결과적으로 30대 기혼여성의 여가관련 앱 사용시간은 전체 사용량의 27% (미혼여성: 전체 34%)에 불과하였고, 기혼남성의 여가관련 앱 사용시간 비중은 전체 사용량의 38% (미혼남성: 전체 37%)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. 하지만, 커뮤니케이션 관련 앱 사용 비중의 경우 기혼여성은 오히려 증가 (19%→23%)하는데 반해 기혼남성은 감소 (18%→15%)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 2] 30대 기혼 남성 vs. 여성의 앱 카테고리 별 스마트 폰 사용시간 비중 (%)



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사용시간 차이는 20대 9.5시간(미혼: 40.4시간 vs. 기혼: 30.9시간), 30대 6.7시간(미혼: 37.7시간 vs. 기혼: 30.9시간), 40대 1.8시간(미혼: 31.5시간 vs. 기혼: 29.7시간) 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였으며, 급기야 50-60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기혼여성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이 미혼 여성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, 남성은 결혼여부에 따른 스마트 폰 사용시간격차가 그다지 크게 발생하지 않았으며, 연령에 따른 사용패턴 상의 차이 또한 두드러지게 발생하지 않았다.

[그림 3]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미혼자와 기혼자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 차이 (주당, 평균사용시간)



결혼에 따른 남녀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 격차는 결혼이 남성보다는 여성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 감소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. 하지만, 절대적 사용시간 기준으로 기혼남녀의 스마트 폰 사용시간에는 별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, 일반적으로 기혼남성이 기혼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스마트 폰 사용에 할애 한다는 의견은 잘못된 편견으로 보인다. 한편, 기혼여성은 미혼여성보다 여가관련 앱 사용비중을 낮추는데 반해, 기혼남성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관련 앱 사용비중을 낮추는 것으로 관측되었다.

결혼을 둘러싼 서로 다른 남녀의 스마트 폰 사용 패턴은 상대방의 스마트 폰 사용을 판단하기에 앞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촉구한다. 즉, 여성은 결혼 후 남성이 절대적 스마트 폰 사용시간을 늘어난 것이 아니라 상대적 여가 관련 앱 사용비중이 늘어나면서 스마트 폰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. 반대로 남성은 결혼 후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스마트 폰 사용시간을 줄이고 있고, 특히 여가와 관련된 앱 사용을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줄어든 여성과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오프라인으로 가져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.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다른 서로의 차이를 알고, 이해하며, 맞추어가려는 노력은 부부간 스마트 폰 사용과 관련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

모바일 홈페이지

**<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>**

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올바른 ICT문화 구축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설립됐다. 스마트 감성시대에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문화적 현상과 이슈를 연구하여 'IT로 보다 행복하고 연결된 삶을 실현'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 연구진 및 기업/공공기관 전문가들과 연계하는 열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.

**문의: 바른ICT연구소 정보가치 연구팀 임지선 연구원**